

로열 익스체인지 씨어터, 맨체스터

Royal Exchange Theatre, Manchester

홈페이지: <https://www.royalexchange.co.uk>



맨체스터 로열 익스체인지 극장은 4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영국의 대표적인 예술 극장/극단이다. 1976년 처음 문을 연 이래로 영국 맨체스터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연을 제작하여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있으며, 이 곳의 독창적인 공연들은 다수의 수상 이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영국 내 실력있는 공연예술가 및 기획자들과 협업하고 있으며, 젊고 유망한 신진예술가들을 길러낸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케이트 윈슬렛과 휴 그랜트 또한 영화계에서 주목을 받기 이전에 로열 익스체인지 극장에서 활동했었다. 맨체스터 로열 익스체인지 극장은 과거 섬유 무역 교환소를 극장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몇 차례의 폭격과 피해에도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맨체스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였다.

맨체스터 로열 익스체인지 극장은 공연 제작 및 상영과 더불어, 지역 주민 및 파트너 기관들과 다양한 참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와 연계된 Schools & Colleague 프로그램을 비롯해 관객 및 예술가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령층 및 지역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참여 프로젝트이자 노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는 **시니어 극단 (Elders Company)**이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2014년에 'Royal Exchange Elders Company'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행되었다. 시니어 극단은 맨체스터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년층 참가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주간의 교육 과정과 실제 연극 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연극 및 무용에 관심있는 노인들은 전문가들로부터 연극 기술을 배우고, 나이듦에 대한 선입견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한다.

현재는 60세 이상의 노년 극단원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대 연극 기술과 노하우를 개발

하기 위한 정기적인 워크숍과 프로젝트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이 워크숍의 차별적인 부분은 실제로 맨체스터 로열 익스체인지 극장 내의 전문 연극인들이 함께 한다는 점이다. 각 세션들은 기관 내 예술가들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체움직임 세션은 Benji Reid, 인형극 세션은 CJ Johnson, 발성 수업은 Hazel Holder, 극본 수업은 Natalie Diddams가 운영하고 있다.

시니어 극단은 Elders Monthly라는 하위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Elders Monthly**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열려 있는 일인극 (STAND-ALONE) 형식의 시범 워크숍이다. 이 워크숍은 노인들이 연극에 대해서 알아가고, 연극의 기술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끔 기획되어 있다. 또한 이와 연계되어 **Elders Investigate**는 노년층으로 구성된 그룹들과 함께 창의적 글쓰기 워크숍, 토론회, 이벤트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라 버틀러라는 작가가 진행하고 있으며, 삶과 문화예술의 관계를 탐구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Elders Champions** 프로그램은 참가자를 선정하여 지역 컨퍼런스나 행사에 참여하거나 지역내 워크숍을 자체적으로 기획/진행하게 함으로써, 맨체스터 로열 익스체인지의 프로그램들을 홍보하고 새로운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제공한다.

또한 맨체스터 로열 익스체인지 극장 내 프로그램들은 세대 간 교류의 가치를 중시하는데,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서 극장 내 **청년 극단 (Young Company)**과 **시니어 극단 (Elders Company)**의 협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두 극단의 단원들이 함께 Press Night에 참가하여 담소를 나누거나 포럼 및 심포지엄에 함께 참석하고 실제로 공동 작품을 만들기도 한다. 일례로, 2015년 Manchester Book Festival과 2016년 Great Big Noise Festival에서 두 극단의 협동작 <FLICKER AND THE FLYING BOOKS>라는 작품을 240명의 일반 관중들에게 선보이기도 하였다. 2017년에는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인 <THE SPACE BETWEEN US>를 제작하였다.



현재 맨체스터 로열 익스체인지 극장의 주요 참여 및 교육 프로그램은 Arts Council England와 AGMA (Association of Greater Manchester Authorities), Beaverbrooks Charitable Trust 의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시니어 극단을 비롯한 로열 익스체인지의 노인대상 프로그램들은 **맨체스터시의 Age Friendly Manchester와 연계되어 있는 지방자치형 프로그램의 모범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시니어 극단 (Elders Company) 영문 메인 페이지
<https://www.royalexchange.co.uk/elders-company>

***청년 극단 (Young Company):** 청년 극단은 14세에서 25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열려있는 1년간의 레지던시 형식의 극단이다. 매주 강의를 비롯해 극단 관계자 멘토링과 실제로 연극 작품을 구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참가자들은 맨체스터 로열 익스체인지 극장의 메인 공연에 참가해 볼 수 있는 차별적인 기회를 부여받는다.

청년 극단 영문 메인 페이지: <https://www.royalexchange.co.uk/young-company>

